

# 게리 예이츠 박사, 12권, 25회기, 하박국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하박국서 25장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의 초점은 하박국서에 맞춰질 것입니다.

12장에서 하박국의 메시지와 스바냐의 메시지는 특히 서로를 보완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책과 이 두 선지자의 사역은 백성을 준비시키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스바냐와 하박국이 이 주제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 부분에서 스바냐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으며 스바냐는 다가오는 주님의 날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준비시키고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개인적인 신앙의 위기로 보이는 바벨론의 위기를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와의 대화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미래를 계시하시고 펼쳐 보이십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예언적 문헌은 나에게 여러 면에서 예레미야의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의 사역과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상황에 대해 애도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날 일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의도하시는 일 모두에 대해 그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유다 나라 백성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에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겪고 있는 믿음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가 당대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통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지시하시고 준비시키시며 심판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중입니다.

예레미야와 하박국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기도의 풍부한 언어와 기도의 모범과 사례를 우리에게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하겠지만, 이는 또한 선지자들이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의 파괴적인 결과를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수행했던 어려운 역할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그들은 그들의 삶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상황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특별한 역할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육신적인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을 진정으로 살았습니다. 특히 이 책에 나오는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 와 예레미야의 고백서에 나오는 예레미야와 주님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며, 여기에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그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하박국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이 땅에 있는 의인을 기억하옵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살펴보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진정한 성육신 사역은 하박국과 예레미야의 사역, 그리고 선지자들이 자주 겪었던 투쟁과 위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의 사역 시기와 이 모든 일이 바벨론의 위기와 관련하여 언제 일어났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이 책에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의 사역이 바벨론의 위기 전체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는 암시가 이 책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이를 제안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입니다.

1장 5절과 6절에서 주님께서 하박국에게 바벨론 군대를 보낼 준비와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은 다소 놀라운 요소인 것 같습니다. 1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 중에 보고 놀라고 놀라라. 너희가 들어도 믿지 못할 일을 내가 너희 시대에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자기 소유가 아닌 집을 빼앗으려고 땅바닥을 두루 다니며 행진하는 가혹하고 성급한 민족인 갈대아인들을 일으키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다소 놀라운 요소입니다. 이는 하박국의 사역이 적어도 바벨론 위기 초기에 시작되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나보폴라사르가 기원전 627년 또는 626년에 바빌론의 독립을 확립한 직후, 또는 적어도 바빌로니아인들이 유다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고 605년, 597년에 세 단계의 포로 생활을 시작하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586. 그러나 2장에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바벨론에 화가 선언됩니다. 바벨론은 피위에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압제적이고 폭력적인 왕국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하박국의 사역이 이제 그의 메시지에서 기원전 605년 이후 어느 시점에 바벨론 사람들을 반영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3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책 마지막 부분에는 유다의 침략과 그들에게 닥칠 재앙과 재난이 임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의 이 대화와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위기 전반에 걸친 사역을 봅니다. 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제기한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 책의 구조입니다.

1장의 시작 구절에서 하박국의 첫 번째 불평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 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탄식 또는 불평입니다. 하박국은 땅이 악과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불평합니다. 유다 백성은 완전히 부패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사용되는 몇 가지 매우 강력한 비유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땅에 사악함이 만연하여 율법이

마비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아니하며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정의가 왜곡되고, 뒤틀리고, 구부러졌다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은 마비되고 정의는 왜곡됩니다. 하박국이 그 땅을 둘러보며 바벨론 위기 직전에 그의 시대에 있었던 상태를 볼 때, 그 땅은 사악함과 사악함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질문은, 1장 3절에 길이 있는데, 어찌하여 나로 죄악을 보게 하시고 어찌하여 허물을 멍하니 보시나이까? 그러므로 이 만연한 악으로 인해 법은 마비되고 정의는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왜곡됩니다.

맙소사, 어디 계시나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시편의 애도 언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나요? 아니면 왜요? 아니면 얼마나 오래?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맙소사, 왜 자고 있나요? 언제 일어날 예정입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언제 하나님께서 깨어나 이 땅에 있는 불의에 대해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나에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어찌하여 허물을 멍하니 보시나이까? 선지자들에는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마지막 날에 의인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생각을 강조하는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미가는 앗수르의 위기 동안 그 땅에서 경건한 자들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은 의인이 멸망하매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위기를 다루고 있는 하박국의 시대와 겹치는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 5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고 참고하세요.

그녀의 사각형을 검색하여 남자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구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리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말하면서도 거짓 맹세를 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눈으로 진리를 찾지 마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은 그들을 소비했습니다. 그들은 시정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기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공 직전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던 문화와 일들을 살펴봅니다. 하박국도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거리를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유를 알고 싶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4절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만 살펴보았는데 그들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력이 없습니다. 확실히 확고한 기반을 갖춘 사람들, 더 부유한 사람들, 지도자들과 양들이 많을수록 그들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길과 자기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내가 큰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과 자기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이니라

나는 부자와 유명 인사와 지도자들에게 갈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멩에를 부러뜨리고 결박을 끊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지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회의 각 계층 에서 이 사람들은 주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사악함이 만연하다는 것을 인상 깊게 하시고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없었던 의자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 곧 허리에 필기통을 찬 천사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 성읍으로 순행하여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신음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내가 듣는 데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기를 따라 성읍으로 지나가서 공격하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끼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노인과 청년과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진멸하지 말고 내 성소에서 표를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그래서 그들은 집 앞에 있던 장로들과 함께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천사들이 두루 다니며 의로운 자들과 경건한 자들의 머리와 이마에 표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눈여겨보시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도시의 악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도시를 쓸어버리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박국 1장의 시작 부분에서 이런 종류의 절망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1장 5절부터 11절까지에서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이것에 대해 뭔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악함을 벌하는 방법은 갈대아인을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하박국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단지 침략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국, 사악하고 악한 나라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본 것과 동일한 예언적 개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사야는 앗수르가 나의 진노의 지팡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시는 신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적국과 그들의 폭력과 전쟁과 이 모든 사악하고 끔찍한 일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나 친히 그 악에 가담하지 않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하라고 요구하시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뢰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보라 6절, 내가 갈대아인 곧 가혹하고 성급한 나라를 일으키리니 그들은 자기의 것이 아닌 집을 점령하기 위하여 땅의 넓은 곳으로 행진하는 것이라.

그들은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들의 정의와 존엄성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는 메대와 동맹을 맺고 앗수르 제국을 무너뜨렸고, 아셀은 614년, 니느웨는 6012년, 하란은 609년, 그리고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에 대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강포한 세력, 하나님의 백성과 이 강력한 군대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강한 나라를 대적하여 올 것입니다. 그것은 하박국이 이 책 서두에서 제기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칼데아인과 바벨론인들이 사악하고 폭력적이라는 사실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말의 끝에서 우리는 그들의 오만함과 그들이 주님을 완전히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바람처럼 밀려가며 나아갑니다. 그들은 자신 의 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확실히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여 유다를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은 모범적인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사악하고 사악한 제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아시리아인을 반영하며, 오만함으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힘을 신뢰합니다.

이사야 13장과 14장에서 바벨론 왕은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못별 위에 높이리라 말씀한 자입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고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야의 반응은 결국 이 교만하고 오만한 왕이 새벽의 새벽별처럼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 자신에 대해서는 모범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신뢰합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6절과 17절에서는 바벨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그물, 즉 그가 열국을 사로잡는 데 사용하는 그물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숭배하고 심지어 그것을 위해 제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가 그물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치하고 음식이 풍족함이라.

그렇다면 그는 계속해서 그물을 비우고 나라들을 영원히 무자비하게 학살할 것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경건하거나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숭배합니다. 단순히 거짓 신을 숭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함정에 빠지고 억압하며 궁극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러 불경건한 바벨론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이것이 하박국의 탄식에 대한 주님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 번째 애도와 분명한 질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박국이 했던 것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장 12절부터 17절에서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아마 이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여기서 처음부터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을 확증하려고 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로되 태초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주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냐 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분이시여, 우리는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불경건한 바벨론 사람들을 보낸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영원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에 관한 가장 위대한 진술 중 하나인 13절을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고백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성품을 알고 주의 눈이 정결하여 악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악에서 자신을 구별하셨습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거룩함과 관련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의 결과인 하나님의 분리하심입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은 너무나 순수하시고 거룩하셔서 악한 일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잘못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같은 불경건한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이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찌 이 군대와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백성을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17절의 이 불평의 끝에서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허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계속해서 그물을 비우고 나라들을 영원히 무자비하게 학살할 것입니까? 주님,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하도록 놔두실 건가요? 당신은 그들이 국가를 영원히 죽이고, 포로로 잡고, 억압하고, 노예로 만드는 것을 그냥 허용할 것입니까? 바빌로니아 사람들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하박국은 첫 번째 불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유다 땅에 있는 악한 일을 주께서 언제 행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바벨론 사람들의 악을 심판하고 돌보실 생각이십니까? 하나님은 2장에서 두 번째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준비로 대화가 계속되면서 하박국은 2장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가 감시 초소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망대 위에 서서 그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당신이 이 비전을 기록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읽는 사람이 달려갈 수 있도록 테이블에 그것을 분명하게 표시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비전은 지정된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은.

선지자에게 무언가를 기록하라는 즉각적이거나 직접적인 명령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전의 말씀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이런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의인들이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느린 것 같으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올 것이다. 지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인 증거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8장에서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그 아들이 태어난 후에 왕과 백성들에게 이 아들이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전달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연필을 들고 서서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존하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 하박국과 같은 의인들은 이 위기를 견디며 살아가며 앞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재앙과 혼란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4절의 약속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입니다. 의로운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유다를 심판하신 후,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후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진행되면서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마치 무적의 나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지어 바벨론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2장의 나머지 부분에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다섯 가지 다른 화가 있는 일련의 화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의 심판이 바벨론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비에 신탁의 사용, 이것의 배경이 장례식 애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장례식이 있을 것이며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그들의 사악함과 폭력, 그리고 제국을 건설하는 데 가했던 압제 때문에 죽음과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점수까지 가십니다.

다시 하박국과 그 동시대 인물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의 손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다 주변 나라들은 바벨론의 손에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현재 이 나라들의 통치권을 바벨론에 맡기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다윗은 그의 부총독이자 그의 대표자였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열방과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후에 바벨론 자신도 이 진노를 마시고 그 잔을 마셔서 끝까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박국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2장에서 이 재앙의 신탁이 폭력과 억압으로 인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점이며, 특히 바벨론이 어떻게 노아 언약의 명령을 어겼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2장의 구성에서 이 비애의 예언은 내가 주목하고 싶은 매우 예술적이고 시적인 구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2장 6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처음 세 가지 화에는 열 가지 시로 표현된 세 가지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세 가지 화 끝에는 장차 임할 심판을 통해 반사되고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위대한 제국에 심판이 내릴 때,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분명하고 눈에 보일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유대인들과 포로들은 때때로 바벨론의 신들이 주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면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을 보리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장 15절에서 19절에 마지막 두 번의 화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 장의 앞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균형을 이루는 10개의 시적 행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십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실 대심판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나서 그들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 돌이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특히 그것이 그들의 폭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들의 유혈 사태입니다. 나는 우리가 하박국 2장의 바벨론 심판과 창세기 9장의 노아 언약 사이의 연관성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신학적

개념은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맴돌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8절에 보면, 네가 많은 나라를 약탈하였은즉 사람의 피와 땅과 성읍들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함으로 남은 백성이 다 너를 약탈하리라 하였느니라 .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에 돌아올 폭력과 유혈사태를 자행했습니다. 처벌은 범죄에 적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형벌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을 찾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바벨론 제국의 기초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초는 그들의 폭력과 유혈이었습니다. 2장 17절, 레바논에 행한 강포가 너희를 덮칠 것이며 사람의 피와 땅과 성읍들과 그들과 함께 사는 모든 사람에게 강포로 말미암아 그를 놀라게 하던 짐승들의 멸망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래서 그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일종의 자제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유혈 사태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9장과 노아의 언약, 즉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도 흘릴 것이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노아의 언약을 기초로 당시와 현재의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구절에도 우리가 이러한 연결을 맺는 데 도움이 되는 노아와 노아의 언약에 대한 좀 더 미묘한 언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장 15절에는 바벨론에 선포된 또 다른 재난이 나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당신은 진노를 쏟으시고 취하게 하셔서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훔이 앗수르가 다른 나라들을 유혹하고 꾀어 그것을 이용하여 그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매춘부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힘으로, 군사 동맹의 가능성으로, 바벨론의 부를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은 결국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고 이웃을 취하게 한 후에 이를 이용합니다. 누가 그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였는가? 당신은 진노를 쏟으시고 취하게 하셔서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나는 유혈 사태에 대한 강조에 비추어 볼 때,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술 취한 이야기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재앙의 예언,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폭력과 유혈 때문에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1장에서 그들이 정복을 수행할 때 그들의 힘은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물을 송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들의 판단의 원인이자 이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과 주님의 대화는 여기서 일종의 중단점에 이르렀습니다.

하박국은 첫 번째 질문을 제기합니다. “주님, 유다 땅의 불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나는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보낼 예정인데, 그들이 곧 그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사악하고 죄가 더 많은데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결국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라도 이 메시지를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이 됩니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역전시키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무적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무적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견디기 위해 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궁극적으로 내가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머지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7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것이 사실인지 역사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이디어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 비전을 적어보세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스바냐 3장,

하나님께서 이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오실 것이므로 의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미가 7장, 내가 이 땅에 의가 없음을 인하여 통곡하고 애통하노라. 우리는 억압자들에게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지만 의롭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마지막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결의인 시편과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질문과 답변의 순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표제가 있습니다.

이 시작 부분에 악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편에서 보는 표제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책에서 나눈 대화와는 다소 분리되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상도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책에 첨부했다고 생각되는 별도의 구성이 아닙니다. 해결책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메시지와 주장에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대화한 후에도, 자신의 탄식을 표현한 후에도, 질문을 제기한 후에도,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께 자신의 의심을 표현한 후에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계속 의심하거나 의문을 품거나 당황하여 주님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믿음의 위치로 나아갑니다.

이 재난 가운데, 이 혼란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표현합니다. 이런 가운데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박국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한다. 그러므로 이 책에는 애도와 질문에서 궁극적으로 믿음의 표현으로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애가를 보면 하나님께 매우 심각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거의 모든 애도에서 위기에 대한 해결,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약속은 둘 중 하나에 이르게 됩니다. 나는 확신의 말이나 믿음의 말이나 신뢰의 고백이나 찬양의 서원에 대해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2장 4절의 말씀, 즉 의인은 이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구체화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정하고 그의 믿음을 표현하는 하박국의 움직임은 우리가 이 일을 겪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을 특징짓습니다. 3장에 나오는 기도에서 하박국은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강화하는 일을 자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되돌아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자신의 백성을 위해 궁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입증된 하나님의 행동 패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특징은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영하고 보여주는 전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과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 나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끔찍한 일들을 고려할 때 두려움은 진정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년 안에 그것을 되살리십시오. 하박국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수년 내에 주의 진노 중에 자비를 기억하시고 알게 하소서.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께서 하실 진노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자비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당신이 전사로서 행진하여 당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출애굽할 때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그들의 역사 전반에 걸쳐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적들에 맞서 싸우셨던 방식으로 말입니다. 주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그렇게 행하십니다.

이 시편과 이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사로서 진군하실 때 그분의 권능과 능력과 경외하심에 대한 놀라운 묘사를 봅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땅에 가득하여 지면의 물이 덮음 같이 그 땅을 덮을 것을 기억하라. 글썄요, 그것이 2장에서 하나님께서 행진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 성읍 디몬에서 오셨고 거룩한 자는 역시 유다 남쪽 바란 산에서 오셨느니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땅에 가득하였도다. 그의 광채는 빛과 같았습니다.

광선이 그의 손에서 번쩍였고 거기서 그는 그의 힘을 감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사로서 행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여기서 주된 암시가 출애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올라오실 때,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셨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며, 자신의 백성과 함께 행진하실 것입니다. 전사이자 왕으로서 그는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분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은 그분의 영광을 압도합니다.

여기에서는 폭풍과 번쩍이는 빛, 그에 따라 오는 번개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 그 앞에서 의인화된 방식으로 그의 군대에 속한 자들에게 역병이 그와 동행하고 역병이 그의 뒤를 따르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막강한 신의 군대 속에서 역병과 역병은 신과 함께하는 전사들이다.

하나님은 그의 위대함과 영광과 역병과 역병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우러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박국은 그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 사람들을 이용하실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장차 기도합니다. 과거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용사로서 행진하시며 이 시편 8절 하박국서 3장에서 여호와여 주의 진노가 강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강들을 향하여 노하심이요 바다를 향하여 분노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당신은 말과 구원의 병거를 타실 때 활의 칼집을 벗기시고 많은 화살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강들로 땅을 나누셨습니다. 산이 당신을 보고 몸부림쳤습니다.

격렬한 물이 휩쓸 렸습니다. 바다가 소리를 내고 손을 높이 들었다. 저는 우리가 이 이미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의 물과 싸우면서 구약성서의 여러 곳에서 사용된 일반적인 이미지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사로 행군하시는 이유와 진노로 행군하시는 이유는 결국 강을 가르고 바다를 이기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채택된 일반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폭풍의 신 바알이 바다의 신 얌과 강의 신 나하르를 물리친 폭풍의 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알이 혼돈의 물을 물리치고 정복함으로써 어떻게 왕권을 확립했는지를 그들에게 상징했습니다. 다른 고대 근동 종교에서도 사용되는 공통된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종종 구약에서 주님이 비슷한 방식으로 묘사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화적인 세계관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다를 지배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는 논쟁을 만드는 방법으로 공통의 문화적 구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 세력을 다스리는 자는 바알이 아니다. 물을 정복하는 자는 바알이 아니다.

여호와이십니다. 바다의 용 리워야단을 쳐부수신 분은 일곱 머리 용 로탄을 쳐부수신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성서는 이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화를 뜯어내고 야훼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이해를 접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참 왕이십니다. 야훼는 신성한 전사이다.

궁극적으로 구약에서 이것이 하는 일은 창조 시 물을 다스리고 다스리며 그곳에서 왕권을 세우신 창조주 야훼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나라들을 물리치는 신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는 역사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일차적 증거와 일차적 예는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만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을 물리치기 위해 바다를 사용하셨습니다. 존 오스왈드(John Oswald)는 구약과 고대 근동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신화 속의 성서』에서 그 점을 설명합니다. 그는 구약성경이 신화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구약성서는 신화적인 관점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구약성서는 단순히 이 이교 가나안 문화의 세계관을 찢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논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하는 다소 독특한 점은 야훼가 바다를 통제하고 물을 물리치고 혼돈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이 사상과 이미지를 취하여 이러한 것들을 역사화한다는 것입니다.

혼돈의 세력은 단지 야훼가 창조 당시 통제했던 자연의 세력만이 아닙니다. 혼돈의 세력은 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때 혼돈의 물을 이기시고,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약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와 소망은 창조와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혼돈의 악한 세력을 굴복시키신 것과 같이 바벨론의 위기가 전개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싸워 구원하시는 용사가 되실 것이라는 것이다. 미래에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악을 멸하시고 멸하실 때를 바라보며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도망하는 뱀 리워야단과 구불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리라.

여호와께서는 자신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고 패배시키고 사로잡아 간적국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들은 바다에 있는 용인 리워야단에 비유됩니다.

이사야 51장 9절과 10절은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행하신 방식으로 행하시고 그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이끌어 내실 것에 관한 약속과 기도입니다. 주님, 깨어 일어나소서, 주님의 팔이시여, 옛날, 옛적 세대와 같이 깨어나소서. 라합을 쪼개고 용을 찢러 죽인 분이 당신이 아니십니까? 바다와 큰 깊음의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을 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당신이 아니시니까? 주님, 우리는 당신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돈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당신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박국은 앞으로도 똑같은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런 희망과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그들을 공격한 모든 적국,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패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하박국이 이

특별한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1절에 보면 해와 달이 달려가는 동안 주의 화살의 빛을 의지하여 그 자리에 멈추었나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해와 달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인해 두려움과 마비 속에 얼어붙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수아 10장에 태양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보내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신 날에 대한 언급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이 재난을 겪고 있는 동안 놀라운 믿음의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어디에서나 읽은 기억이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 진술과 주님에 대한 확신에 대한 진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박국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양 떼를 우리에서 떼어내고 외양간에 소 떼를 두지 마십시오.

즉, 약속의 땅에 사는 언약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모두 잃어버리면, 소산이 없으면, 포도나무가 없으면, 포도주가 없으면, , 만약 우리에게 곡식이 없고 기름이 없다면, 우리에게 가축이 없다면, 우리가 바벨론의 위기로 이 모든 것을 잃더라도, 그것이 바로 일어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여호와와 나의 힘이십니다. 내 밭을 사슴과 같게 하시며 나로 높은 곳을 밟게 하시며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나에게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하실 계획인지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불러 우리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번영하고 삶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재난이 닥쳐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서는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이 사상과 원리를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구절을 잠시 살펴보고 나서 이 구절이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ESV에서 번역된 방식입니다.

ESV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실제로는 에무나(emunah) 라는 단어이다 . 그리고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단순히 믿음이라기보다 의인은 그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는 성실, 신뢰성, 정직, 신실함을 말합니다.

이는 신명기 32:4, 시편 36:5 및 기타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은 그것에 의지할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인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 단순한 신뢰가 아니라, 그 신뢰에서 자라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구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신실함과 순종으로 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가져오실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변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를 하나님에 대한 언급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칠십인역에서 주님은 의인들이 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까, 아니면 의인의 신실하심입니까? 그러나 의인은 가장 가까운 선행사례이며 아마도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 가장 그럴듯한 해석이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언급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의인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3인칭 접미사가 약속의 신실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가장 가까운 선행 사례이자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며, 신실함으로 살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

이제 이 구절은 신약성경에서 세 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구절 중 하나가 있는데, 작가가 이 구절을 하박국서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거의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장에서는 죄송합니다. 11장은 신앙장이기 때문에 보고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하박국 2장을 보면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 했습니다. 만일 그가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핍박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며, 그런 사람의 특징을 반영하는 신실함을 보이며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바울의 서신에서도 이 구절을 흥미롭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이 구절을 사용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그래서 우리는 방금 이야기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어떻게 사용하며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그 대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은 바울이 하박국 2장의 약속을 읽고 있으며 그것을 종말론적인 방식으로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박국 2장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3장 12절부터 13절에 묘사된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로마서에 올 때, 갈라디아서에 올 때, 신약에 올 때와 예수님의 오심에 올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그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박국의 약속을 종말론적인 방식으로 읽습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바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서에 대한 주석을 제공하는 콤란의 본문인 콤란의 페셰르(Pesher)는 하박국 2장 4절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가져오실 종말론적 구원을 언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의 콤란 페셰르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때가 그분이 정하신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2.4절에서 약속하신 구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콤란 공동체는 적군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언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Kittim, 서양인, 로마인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의 원수들을 패배시키실 것이라는 종말론적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위기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즉, 의인들은 여전히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며 궁극적인 구원의 약속을 여전히 신실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비추어,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새로운 계시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에 비추어 바울은 이제 하박국서에 나오는 약속을 이해하고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약속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회복과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쿰란 사람들은 그러한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오는 곳임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렸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계시가 진행됨에 따라 신실함의 초점은 더 이상 토라를 준수하고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되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하박국서의 의미를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방식으로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간증과 신앙고백 중 하나가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 가운데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이 구절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같은 종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을 위한 회복 약속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성취를 기다리면서 살고, 모범을 보이고, 그와 같은 종류의 신실함을 모범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박국서 25장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